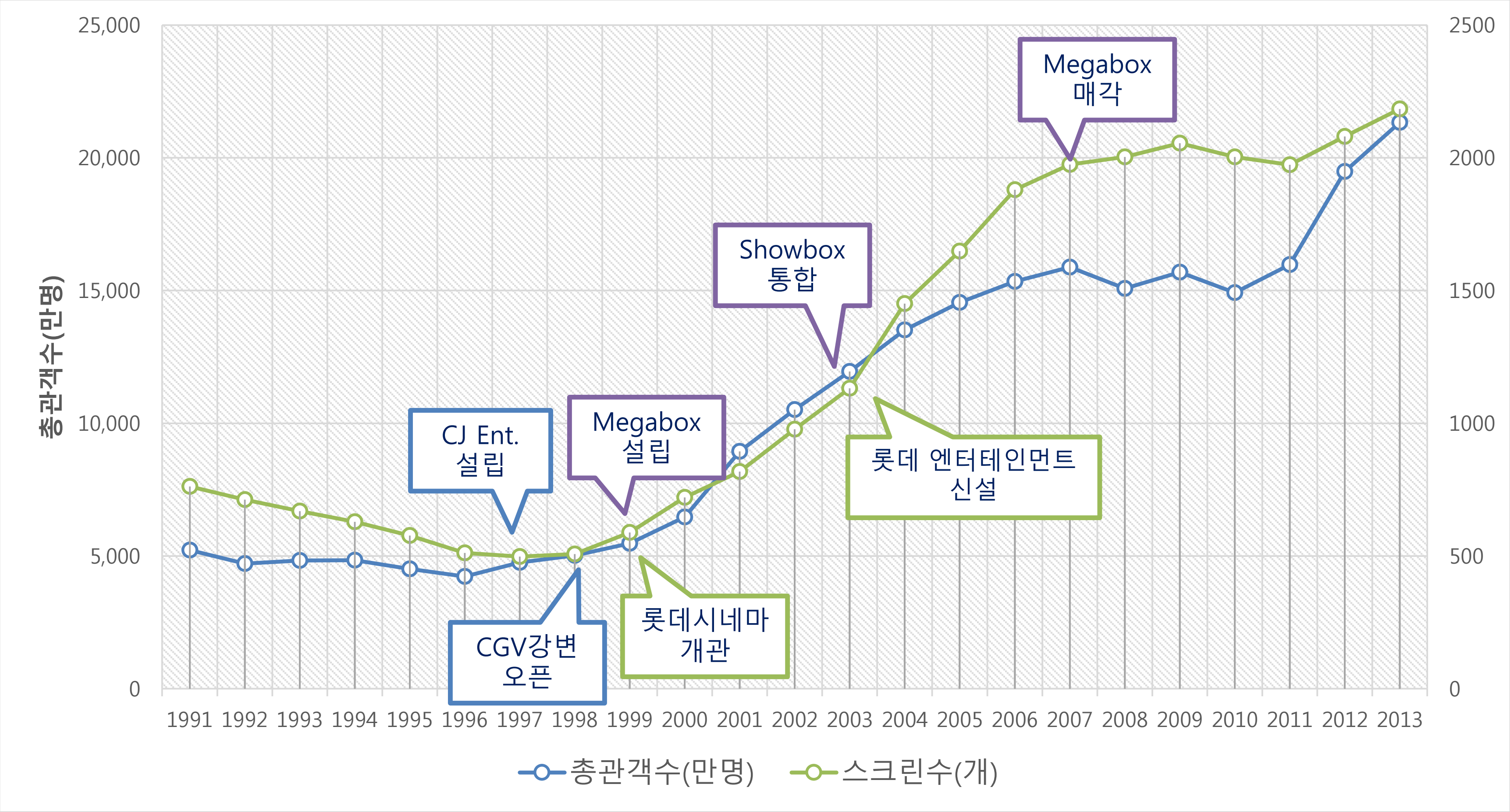
한국영화산업 수직계열화 무엇이 문제인가?

2014. 4. 2.

2014 창조경제활성화 포럼

추계예술대학교
안 성 아

I. 한국 영화산업의 성장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총관객수(만명)
2500
2000
1500
1000
500
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Megabox 매각
Showbox 통합
CJ Ent. 설립
Megabox 설립
롯데 엔터테인먼트 신설
CGV강변 오픈
롯데시네마 개관
총관객수(만명)
스크린수(개)

영화업계 뜨거운 감자

朴대통령, 영화산업 수직계열화 지적 "양극화 심하다"

노대래 위원장 "수직계열 분리 규제보다 공평한 참여 기회가 중요"

윤제균 감독 "영화산업, 불공정거래 가능성·소득 불균형 문제"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입력: 2014.03.20 19:28:39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4.3.20/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의 영화 투자·배급·극장 상영 과점 상황을 해소할 구체적 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民·官)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콘텐츠 사업은 내수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 시장에 뻗어나가는 창조경제의 예"라며 "소프트웨어, 콘텐츠 분야에서 중요한 것은 시장을 잘 만들어주고 제값을 받을 수 있게 하며 시장에 콘텐츠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 · 인터뷰 · 지역 · 오피니언 · 포토/UCC · 민토방 시민일보 검색

3월 5일 수요일 이시각 인기뉴스 마포구 보건소, 노인들 | 정규직 전환 '청년 인 | 두산인프라코어, 중장비

홈 > 정치 > 정당/국회

"대기업 상영관들 '甲의 횡포'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해야"

김상희, 영화·비디오법개정안 발의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승인 2014.02.28 17:09:32

[시민일보]대기업 영화 상영관 경영자에게 영화 상영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화 상영관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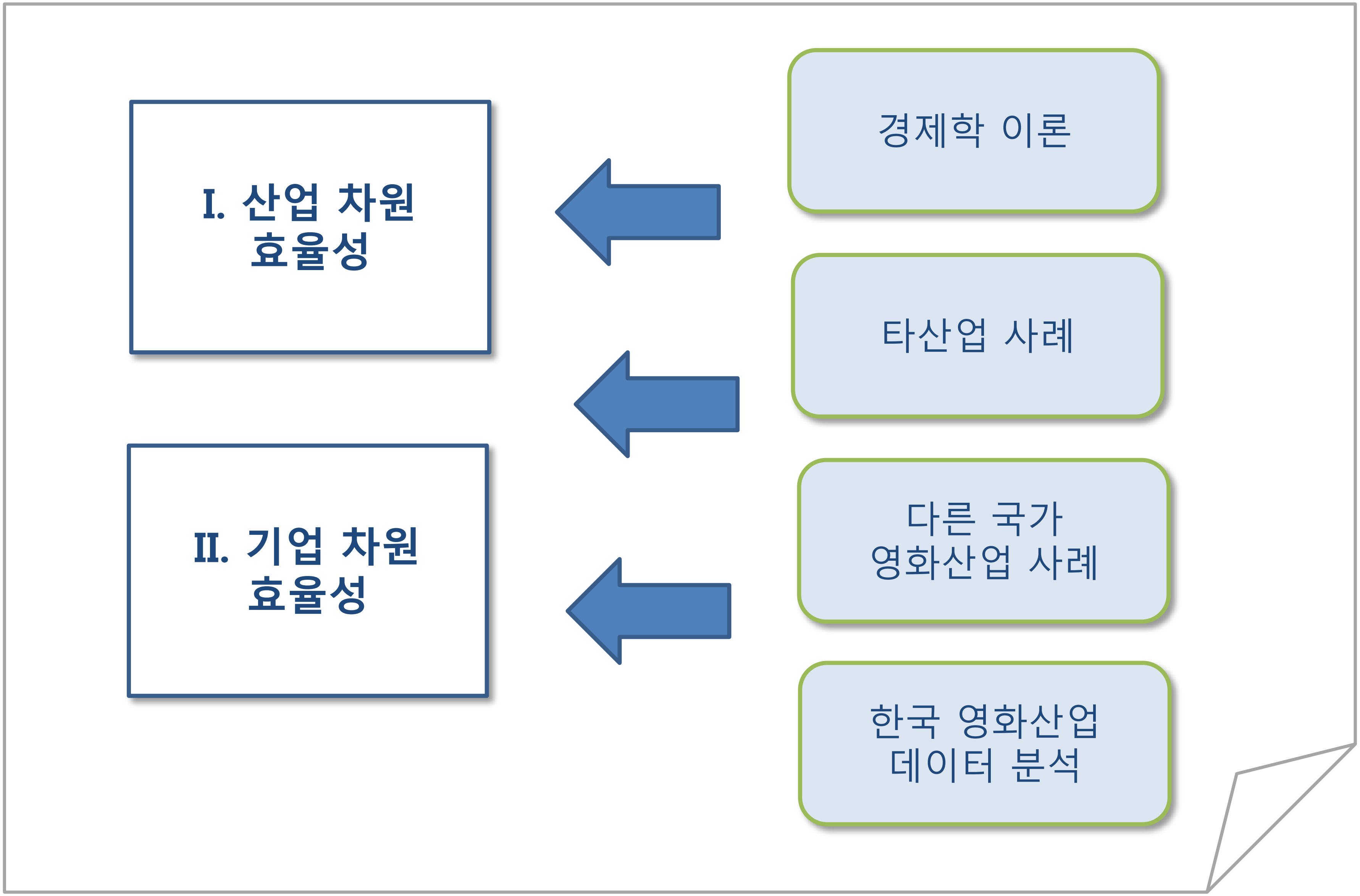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 소사)은 2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영화계 자율협약 존중을 기본 원칙으로 대기업 영화 상영관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7월 한국영화 동반성장협의회(이하 동반협)는 한국영화 산업 전부문에 걸친 동반성장과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을 체결했지만 대기업과 중소 제작사 및 협력업체들의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자율협약이 지지부진돼 왔으나 2013년 12월 자율협약 이행 여부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하기 위해 '불공정행위모니터링센터'가 설치됐으며 오는 3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용배 대표 "'26년', 멀티플렉스에 노예계약한 것"

기사입력 2013-10-21 11:55:36

수직계열화 효율성 분석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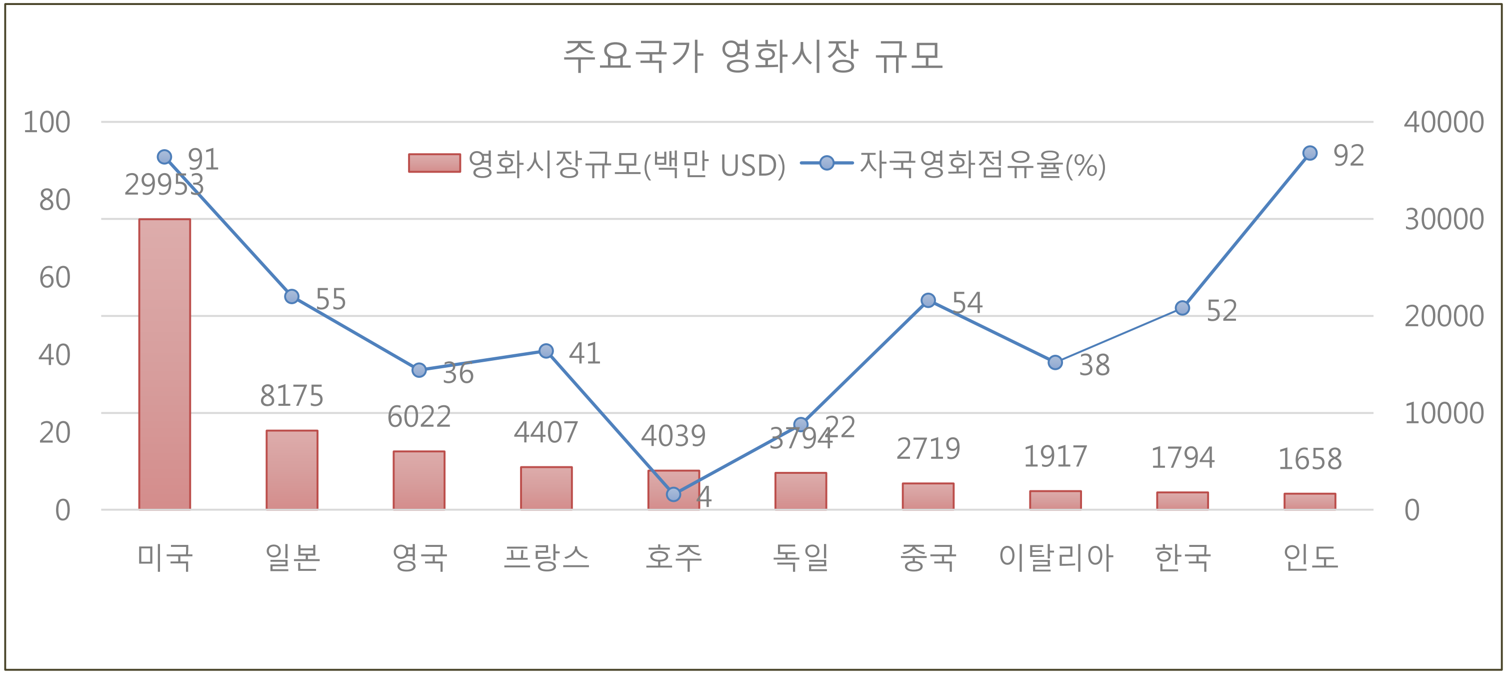


I. 산업 측면

영화산업 수직통합 찬성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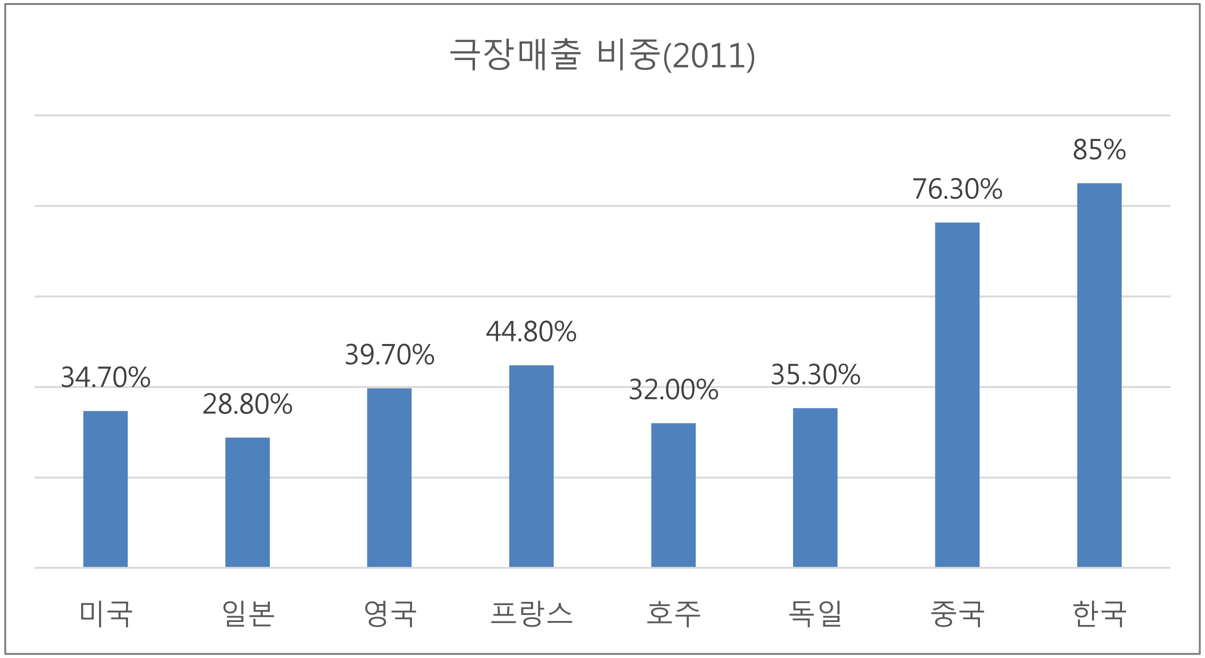
- 수직통합은 영화산업 성장을 위해 필요한 단계 (좌승희, 이태규 2006)
  - 영화의 특성상 높은 고정비를 회수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 달성
  -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한 거래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증대시킴
  - 안정적 수익구조로 대작에 투자 가능, 한국 영화시장을 키우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임
  - 일본과 미국의 성공사례

- 현재 한국영화시장 규모 세계 9위, 자국영화점유율 5위
  - 자국영화점유율: 인도(92%) > 미국(91%) > 일본(55%) > 중국(54%) >한국(52%)



영화산업 수직통합 찬성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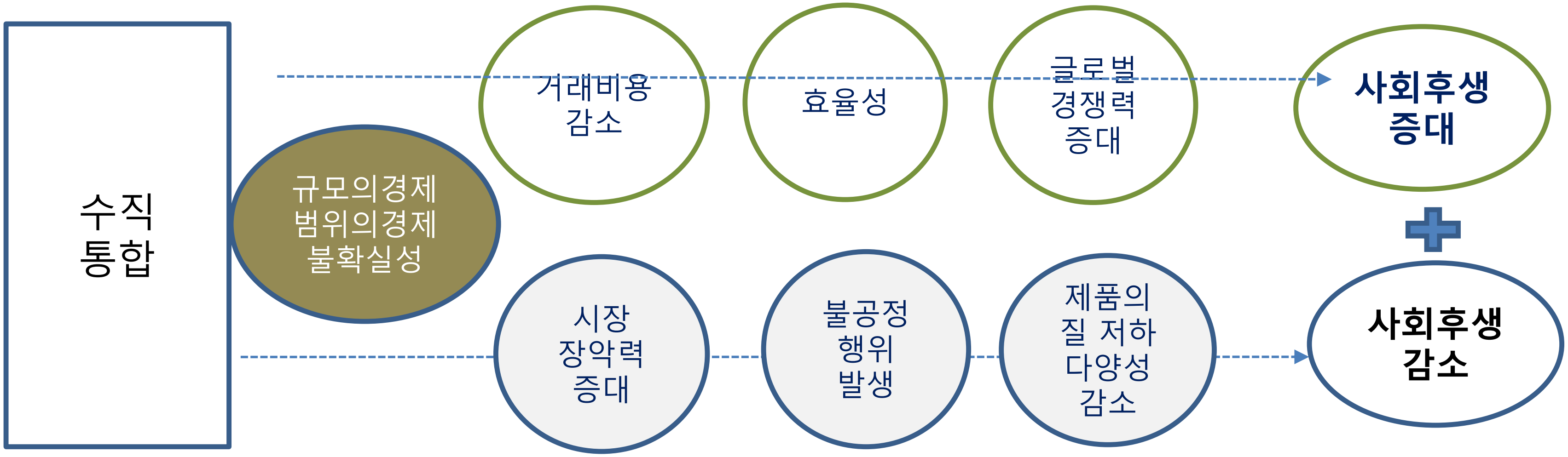
- 한국 영화관객의 높은 극장 의존도로 수직통합 효과 증대
  - 한국은 극장매출 비중이 85%로 극장의존도 매우 높음
    - 미국, 일본, 유럽 대부분 40% 미만으로 부가시장 매출이 앞섬
  - 스크린 수 확보는 박스오피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흥행변수
  - 극장의 매출은 후속창구 매출의 지표



(출처: 영화진흥위원회(2013), 2011 세계 영화산업 현황과 한국영화의 해외 진출)

영화산업 수직통합 반대 입장

- 시장지배력 증대, 비효율 발생(최영준, 김미현 2013)
  - 일반산업의 수직통합은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나 영화산업의 경우 단일 가격제로 시장지배력만 증대됨
  - 기업의 불공정 경쟁전략의 도구로 활용되어 비효율 발생할 가능성 높음
  - 부익부 빈익빈 가속화: 제작사는 영세화 ⇔ 배급/상영업은 대기업 위주 집중 심화
  - 소비자 관람권 제한, 사회후생을 감소시키는 결과



경쟁환경 변화에 따른 경제학적 접근 변화

하버드학파의
"당연위법성"

- 수직적 통합 반대 입장
- 집중화된 시장의 성과가 경쟁시장에 비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강력한 반독점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의
- 레버리지 효과, 시장봉쇄, 효율성 감소의 부정적 효과
- 미국 대법원에서 정통적 견해로 받아들임: 5%의 점유율을 가진 기업이 수직결합을 하여도 저지

시카고학파의
"당연합법성"

- 수직적 통합 찬성 입장
- 시장지배력이 부족하면 레버리지, 시장봉쇄를 할 수 없고 효율성은 증대됨.
- 시장기능을 높이 평가하고 정부개입 가능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
- 이중마진 제거, 거래비용 절감의 긍정적 효과
- 1984 미 법무성 수직결합 가이드라인에 영향

포스트시카고 학파
"합리의 원칙"

- 시카고학파 논리를 반박, 수직결합이 사회후행 감소시킬 수 있음 증명
- 수직통합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종합 고려해서 반경쟁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
- 수직결합의 반경쟁성 평가 기준은, (1)주시장에서의 시장집중 (2)부시장에서의 시장집중과 진입장벽 존재 (3) 효율성 효과 등으로 판단됨

공정거래법: 기업결합 심사기준(2011.12.28 개정)

-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시장집중도
  - 시장의 봉쇄효과
- 경쟁제한성 완화요소
  -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 신규진입의 가능성
  -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
- 효율성 증대효과

한국영화산업: 1차시장 집중도

- 배급업 높은 시장집중도
  - 국내 영화 배급업은 4강 체재
    - CJ E&M, 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에 의한 과점 시장이었으나 2009년 이후 뉴가 급부상
  - 배급사 시장집중도 지수인 CR3는 80.5 (2013년)
    - 이는 공정거래법 제4조의 기준(75) 초과한 수치임
    - 2011년 HHI(Herfindahl-Hirschman index) 2718로 미국 독과점 시장 기준(1800 이상) 초과

hankooki.com 서울경제

영화배급사 'NEW' 돌풍

콘텐츠 완성도 등 선택과 집중 전략
7번방의 선물·신세계 히트 잇달아
CJ·롯데 제치고 매출점유율 1위

최수문기자 chsm@sed.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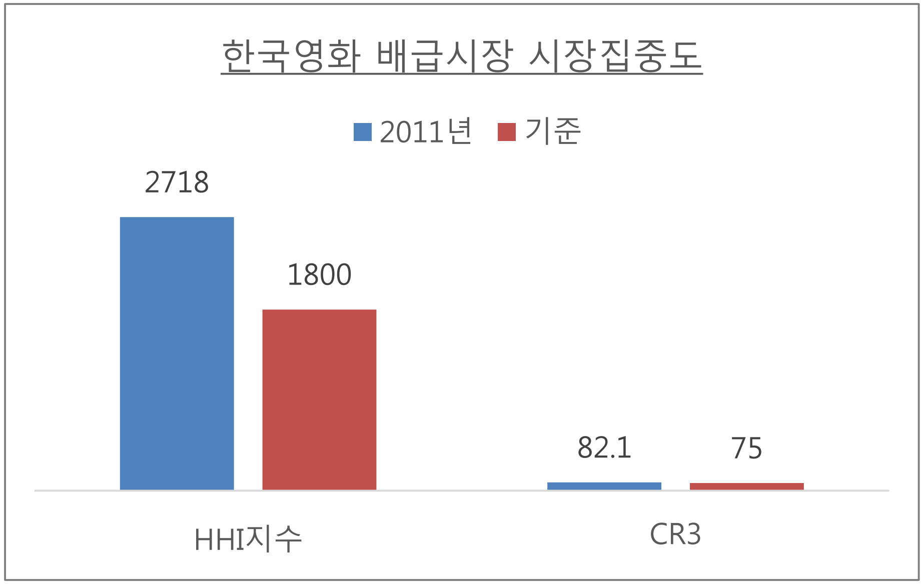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중견 영화 배급사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 뉴)가 대기업 계열 영화 배급사를 제치고 올해 누적 매출액 1위로 올라섰다.

영화 숨바꼭질

영화진흥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NEW는 전국 매출액 1,928억원과 배급사별 점유율 22.5%로 각각 1위를 기록 중이다. 전국 관객 점유율도 23.0%로, 1위다. 매출액 점유율은 상반기까지 CJ E&M에 밀렸지만 뒷심을 발휘하며 7월엔 1위로 올라섰다.

전국 매출액 점유율 기준으로 NEW는 지난해 11.8%로 4위, 2011년도 8.8%로 4위였던 데에 비해 올해 괄목할 만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NEW는 쇼박스와 멀티플렉스 메가박스를 이끌었던 김우택씨가 지난 2008년 10월 설립한 신생 배급사다. 2010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영화에 메인 투자를 한 것을 감안하면 회사 역사는 3~4년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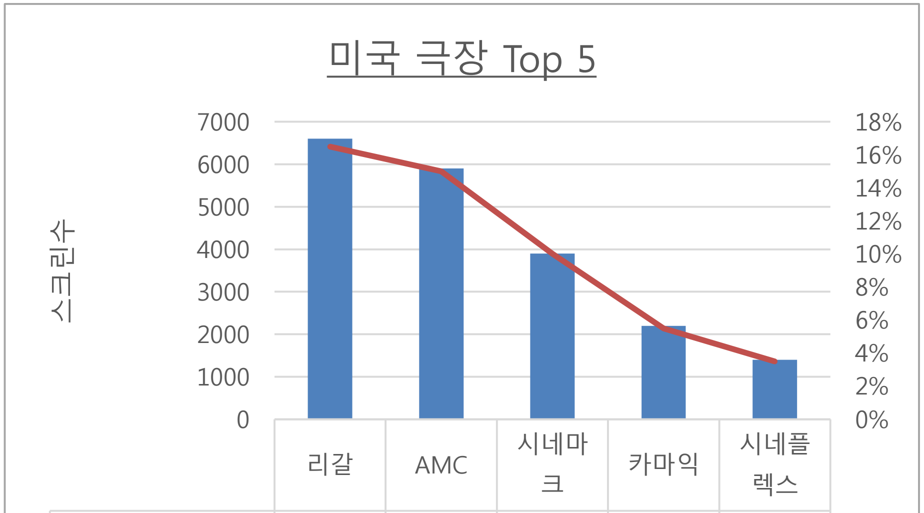
대기업 계열 대형 배급사인 CJ E&M · 롯데엔터테인먼트 · 쇼박스를 제치고 NEW가 올해 이렇게 일어선 것은 전국 관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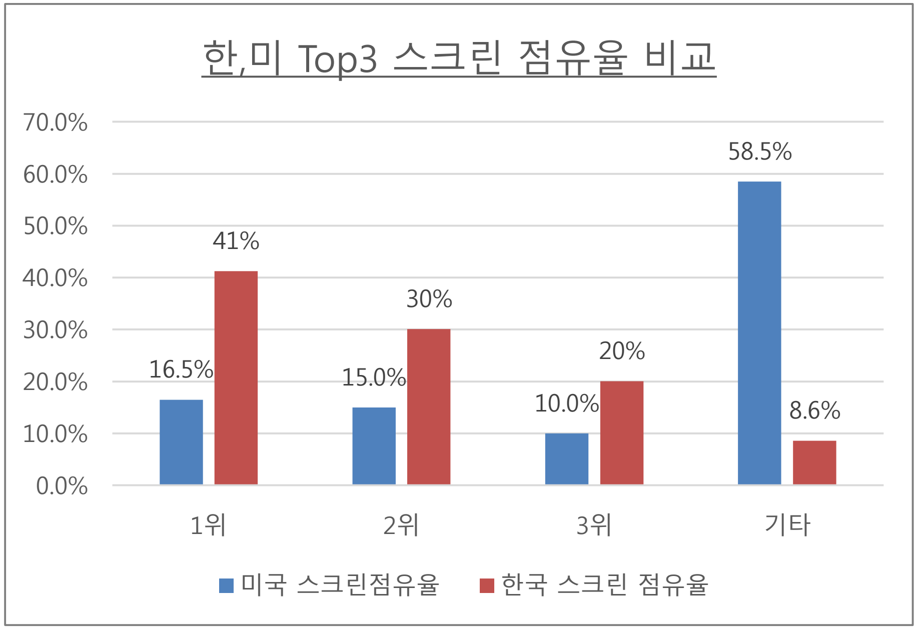
(출처: 연합뉴스 "영화 예매가능 시기 대기업-중소배급사 차별"2013.10.29)

한국영화산업: 2차시장 집중도

- 상영업 높은 시장집중도
  - 한국 상위 3 극장의 점유율은 91% (2013)
    - 한국 상위 3개 극장은 CGV 41%, 롯데시네마 30%, 메가박스 20%
    - 미국 상위 3개 극장이 전체 스크린의 42% 차지(미국 리갈 17%, AMC 15%, 시네마크 10%)
    - 일본 상위 5개 수직결합 극장체인이 44% 점유율 차지
    - 다른 나라의 경우 수직계열 극장과 그렇지 않은 극장이 상위기업에 혼합
  - 한국 상영업의 CR3(2008)가 83.7에서 2013년에 91로 증가
    - HHI 지수 또한 2008년 2721에서 2011년 3341까지 증가 (출처: 연합뉴스 2013. 10.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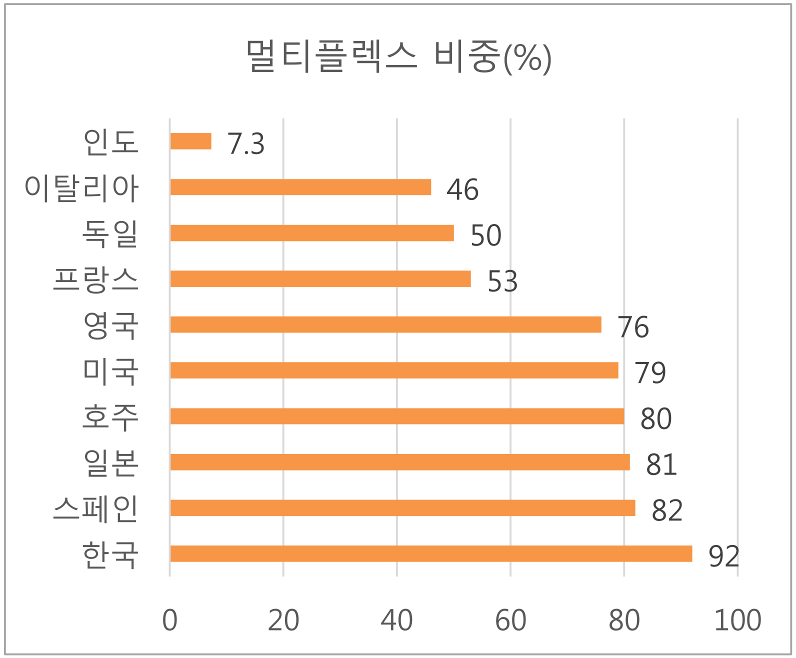
	리갈	AMC	시네마크	카마익	시네플렉스
스크린 수(개)	6600	5900	3900	2200	1400
스크린 점유율	17%	15%	10%	6%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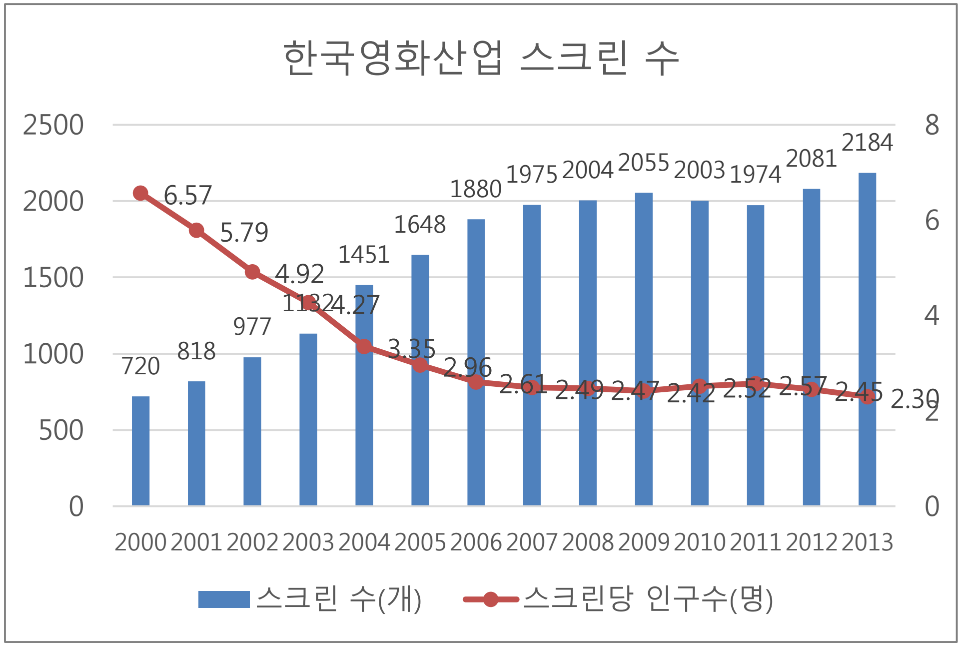


출처: Theatrical market statistics(2012)

한국 영화산업: 2차시장 진입장벽

- 국내 극장시장 포화 상태임
  - 높은 고정투자 필요한 진입장벽 높은 시장
  - 극장시장 성장 둔화: 2013년 스크린 수 2184개, 스크린당 인구 수 2.34명으로 2010년 이후 둔화 추세
  - 극장 중 멀티플렉스 비중이 92%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임





수직계열화 기업의 편향적 행동 유형

- 자사계열 영화 공급 확대
  - 계열 영화 스크린 수 일정수준 이상 확보 또는 유리한 스크린(또는 사이트) 배정
  - 관객점유율이 떨어지더라도 일정기간 상영 보장
  - 자사영화에 대한 예매시기 조정
- 타사 영화 공급 축소
  - 자사영화가 상영될 시기 경쟁영화의 상영관 축소 또는 종영
- 극장의 일방적 처사
  - 부율 조정의 문제
  - 예고편 광고비와 3D안경, VPF 비용 일부를 배급사 부담해 소송 중
- 소비자 후생 감소 우려

독점 논란 일으킨 영화의 스크린 개수

제목	배급사	최대 스크린 수	점유율(%)
도둑들	쇼박스	1091	52.5
은밀하게 위대하게	〃	1341	64.4
아이언맨3	디즈니	1389	66.7
트랜스포머3	CJE&M	1409	71.0
광해	〃	1001	48.1

2013년 9월말 스크린수 2082개 기준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출처: 한국경제, 영화 스크린 독과점,수직계열화 해법 없나. 2014.3.24)

사례. 제작사 vs. 멀티플렉스

- 공정거래 관련 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래상 지위 남용이란 사업자가 자기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원하지 않는 상품구입 또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판매목표를 강요하거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말함

- 제작사 멀티플렉스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 23개 투자사 및 영화제작사가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프리머스 시네마 등 멀티플렉스를 상대로 사전동의 없는 무료초대권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화상영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한다고 볼 수 있는 피고(멀티플렉스 4사)들은 배급사, 나아가 영화제작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들은 배급사나 제작업자들과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동의를 구한 바 없고 일부 배급사는 이에 대해 항의하고 배급사와 협의 없이 무료입장권을 발급하는 행위를 중지해 달라는 공문을 보냄

(출처: 씨네21, 갑님 중심의 영화 생태계를 바꾸자. 2013.11.5)

수직통합으로 인한 편향성 연구

국내 영화산업에서 편향적이라는 결론이 더 많이 나타남
국내외 모두 수직통합된 극장에서 계열사 영화를 더 오래 상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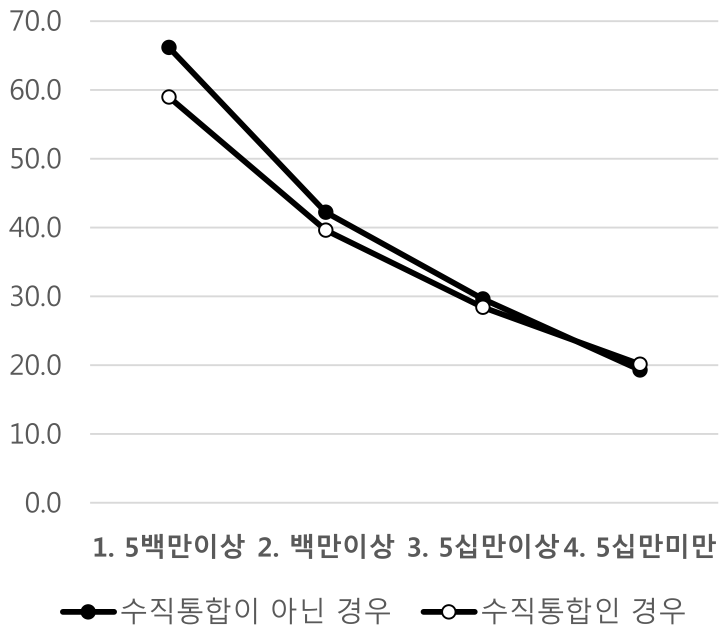
- 해외 수직통합으로 인한 편향성 연구
  - Kwak(2012) 미국 파라마운트와 National Amusement 간 반경쟁성 행위 안 보임
  - Sunada(2010) 일본 수직통합된 회사와 비통합된 회사 간 비교 결과 수직통합된 회사가 품질 및 가격이 높고 관객이 더 많아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고 주장
  - Gil(2008), Fu(2009) 스페인과 싱가폴 조사, 수직적 연계된 영화들이 계열 극장에서 더 오래 상영되는 경향 발견(지배적 사업자라 할 수직통합된 극장은 없음)

- 국내 수직계열화로 인한 편향성 연구
  - 수직계열 멀티플렉스 체인이 배급, 상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연구(남지원 2005)
  - 영화의 국적 다양성 감소시킴(박소라 2008)
  - 동일 계열 배급사 영화를 더 오래 상영함(이근재 외 2009)
  - 영화선택 및 상영횟수가 편향적임(윤충한 외 2012, 최영준, 김미현 2013)
  - 계열 영화 편향성 경향은 성수기와 긍정적 구전이 예상되는 영화일 때 더 크게 나타나며 결과적으로 시장봉쇄를 가져옴(Hwang 2013)

수직계열화 극장의 편향성 정도

- 수직계열극장의 계열영화 우호성 정도
  - 2009년 멀티플렉스 체인별로 계열사 한국영화 평균 개봉관 수를 단순 비교한 결과 타사 영화에 비해 자사 영화에 5~10% 상영관을 더 배정함
  - 특히 성수기 경쟁작이 많을 경우 두드러지고 첫 주 개봉관 수와 개봉 3주 이후 드랍율을 계산할 경우 더 명확한 차이 남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2012.1 수직계열화 무엇이 문제입니까?)



- 흥행한 영화일수록 계열사 영화에게 우호적
  - 계열사 영화와 비계열사 영화 간 간 상영횟수당 관객 수 간 유의한 차이 보임
  - 분석대상: 2010.1.1.~2013.12.31. 개봉작중 관객 수 10만 이상(재개봉 제외)

	누적 관객 수 기준 구분				
상영횟수당 관객 수 평균	5백만이상	백만이상	5십만이상	5십만미만	총합계
비수직계열화 배급사 영화	66.8	42.9	34.5	23.0	31.9
수직계열화 배급사 영화	58.6	40.7	31.9	25.6	34.7
총합계	62.5	41.9	33.5	23.7	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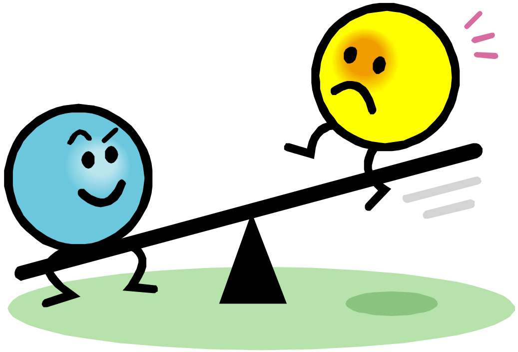
Ⅱ. 기업 측면

기업 입장에서의 비용과 이득

- 수직계열화를 통해 시너지를 내고 있나?

- 수직통합한 기업 입장에서의 이득
  - 대체성이 낮은 거래의 경우 거래비용 완화 효과 큼
  - 협상력 증대로 조정 원활

- 수직통합한 기업 입장에서의 비용
  - 내부 도덕적 해이나 영향력 행위로 인한 비용
  - 관료화에 따른 경직성으로 인한 비용 증가
  - 경쟁 부재로 혁신에 대한 유인 저해
  -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 어려움



타산업 수직통합 사례

자동차 산업

- 자동차업체는 전통적으로 부품에서 판매까지 수직통합 형태로 경쟁력 높임
- 자동차 산업이 몇 개 기업으로 구조조정되면서 협상력이 증가하자 부품업체와의 수직통합을 해체하고 외부조달로 구조를 변경함

통신-콘텐츠 산업

- SK커뮤니케이션즈는 라이코스, 싸이월드, 이글루스 등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을 인수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하자 매각(2013)
- KT는 드라마 제작사 올리브나인을 인수했으나 2년 만에 매각, 드라마사업에서 철수

미국 시멘트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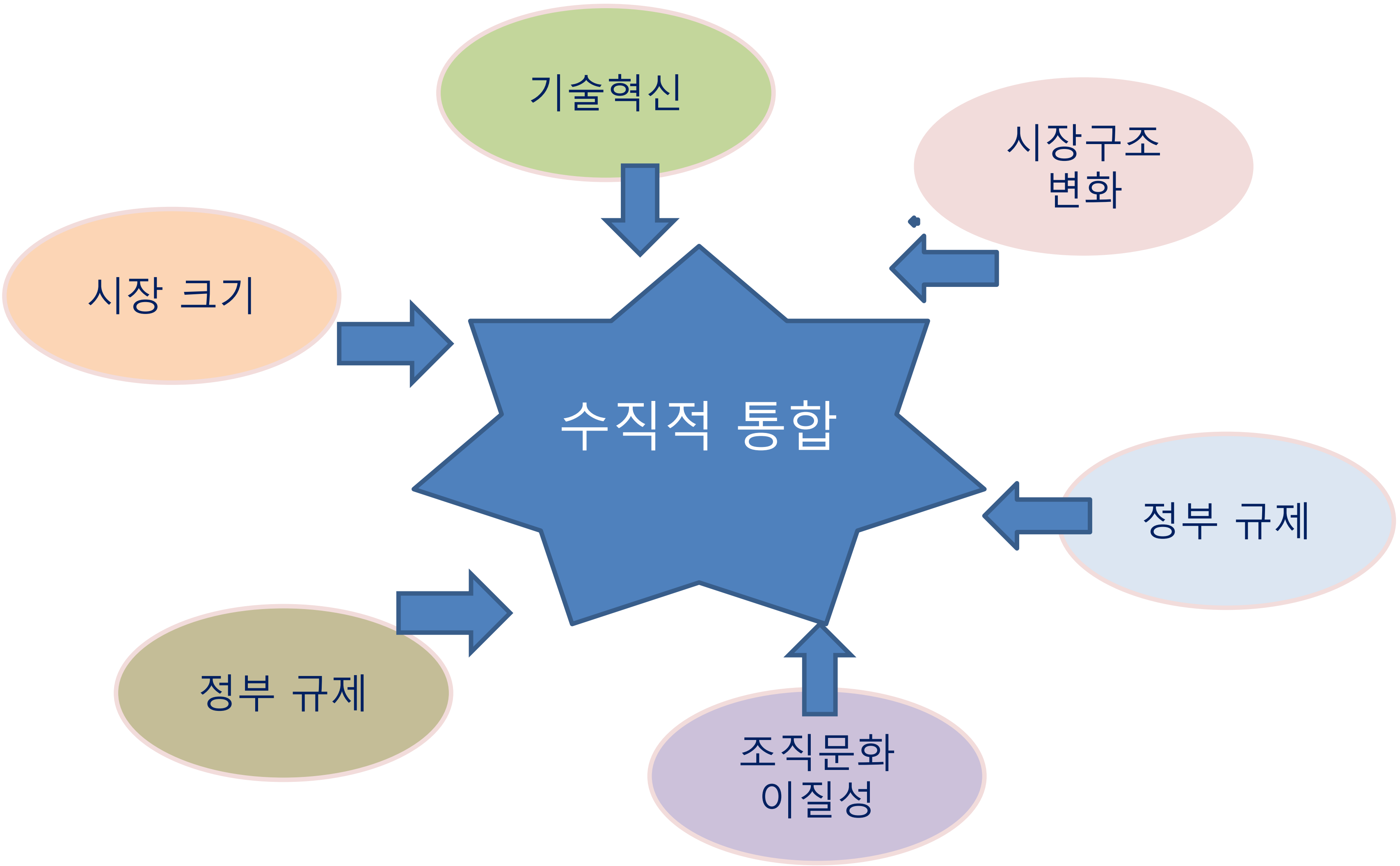
- 60년대 시멘트 생산자와 레미콘 전방 수직결합에 대한 비경쟁성 혐의 제소
- 시장봉쇄, 불공정 가격책정
- 70년대 수직적 해체 강제
- 80년대 규제완화로 재결합
- 90년대 시장봉쇄 우려가 커짐

컴퓨터산업

- 50년대 IBM 등 대형 컴퓨터 제조업체들이 외부조달에서 트랜지스터 직접 생산(수직결합 형태)
- 70년대 마이크로프로세서 소개 이후 인텔이 비결합 업체에게 우수 제품을 공급하면서 IBM 수직결합 해체

수직계열화 해체 배경

<u>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수직적 통합의 효율성 변화</u>



다른 국가 수직통합 상황 (Kwak 2012)

영화산업 수직통합은 쇠퇴 추세, 수직계열된 경우도 시장집중도 높지 않음

미국

영화시장규모 세계 1위, 자국영화 점유율 91%(2012)
1948년 파라마운트 판결 이후 분리, 90년대 거대미디어 그룹으로 수평적 통합
93년 이후 파라마운트만 극장 NAI(National Amusement Inc.) 수직관계 형성

캐나다

세계 12위 스크린 보유, 미국의 10% 규모
수직결합 기업이 상영부문을 오랫동안 지배해 왔으나 2005년 양대 극장체인 (Loews Cineplex, Famous Players)이 합병되고 파라마운트와 최대 극장 체인 Famous Players가 분리되면서 수직통합 끝남(90년대부터 불경기 및 줄파산)

일본

세계 2위 영화 시장, 영화 토착세력들이 수직결합하여 상영시장 장악
5개 수직결합 극장체인이 일본 내 스크린 수의 44% 점유(Toho, Chockiku, Toei, Kadokawa그룹, 워너)

기타국가

호주 : 세계시장의 2.9%(흥행수익 기준), 자국영화점유율 4.3%
4대 극장체인 중 1위와 3위는 수직결합, 나머지는 그렇지 않음
싱가폴: 1인당 영화관람횟수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 극장이 단위면적당 가장 밀집한 지역. 2009년 5개 주요 극장 체인들 중 3업체는 수직결합 상태임
스페인 : 세계영화 시장의 1.4%, 유럽에서 5위 규모, 자국영화점유율 19.5%
97년 할리우드 메이저 워너가 진입, 수직결합 시작. 현재 수직적 결합 업체가 있기는 하나 지배적 사업자라 할만한 영향력은 없는 상태

수직결합 쇠퇴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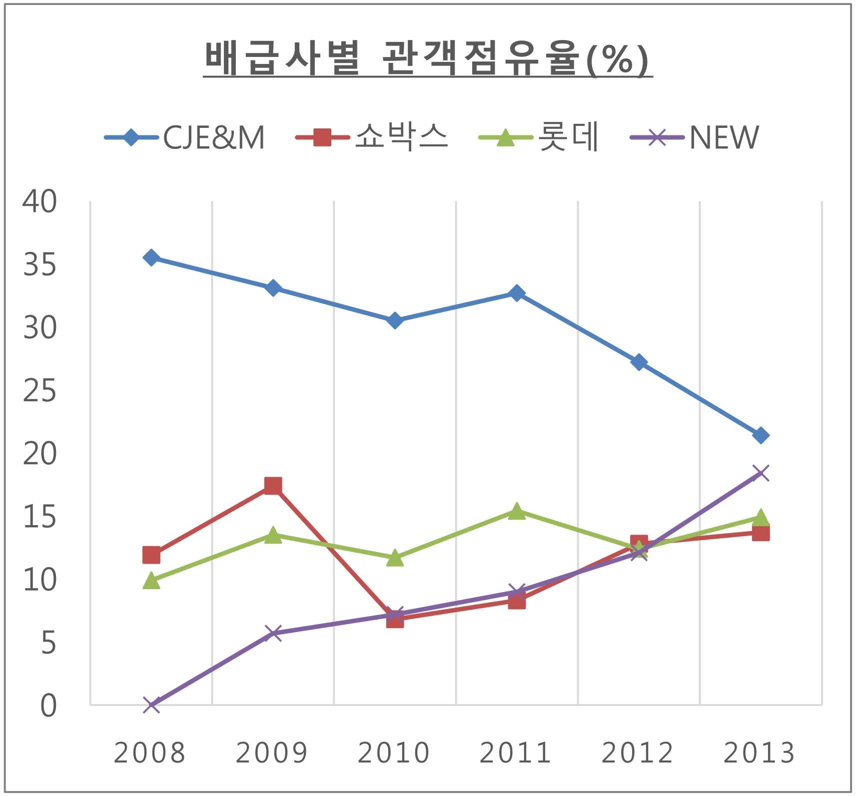
채널확대	수직결합보다 수평적 확산 전략 비용이 더 적다는 주장 :해외시장 확대와 다른 부가시장(케이블 등)을 수직결합보다 더 나은 대안으로 받아들이게 함
시장축소	극장 수요 감소로 인한 극장 유지 및 리노베이션 비용 증가
기술발달	전산화, 온라인 예약 등 흥행수익을 줄이는 것을 감시하는 모니터링 비용이 없어짐. 수직결합 필요성 거의 사라짐
정책	파라마운트 판결이 공식적으로 폐기된 바 없어 잠재적 위협으로 작용하며 현재까지 영화별, 극장별 계약이 강제됨
공급확대	스크린(극장) 증가: 과거 스크린 수 확보가 수직결합의 주요인 중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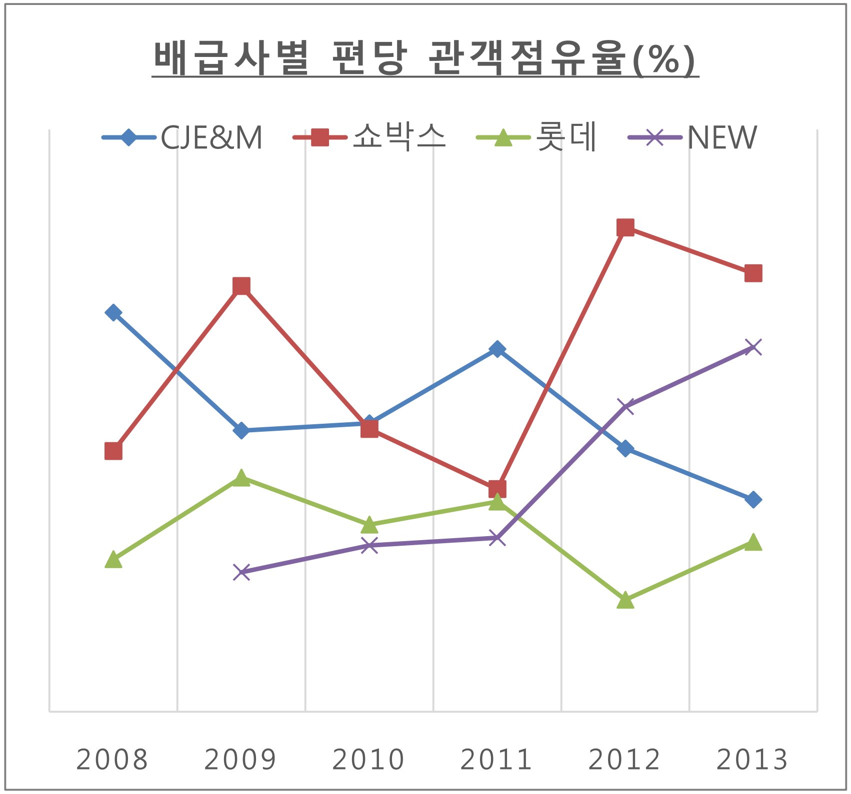
출처: Kwak(2012), On the rise and fall of vertical integration between US movie studios and movie theaters. Ph.D., INDIANA UNIVERSITY.

국내 수직계열 기업들 잘 하고 있나?

전체 영화 성과 비교:

<u>수직계열된 배급사 매출은 높지만 편당 점유율은 더 낮음</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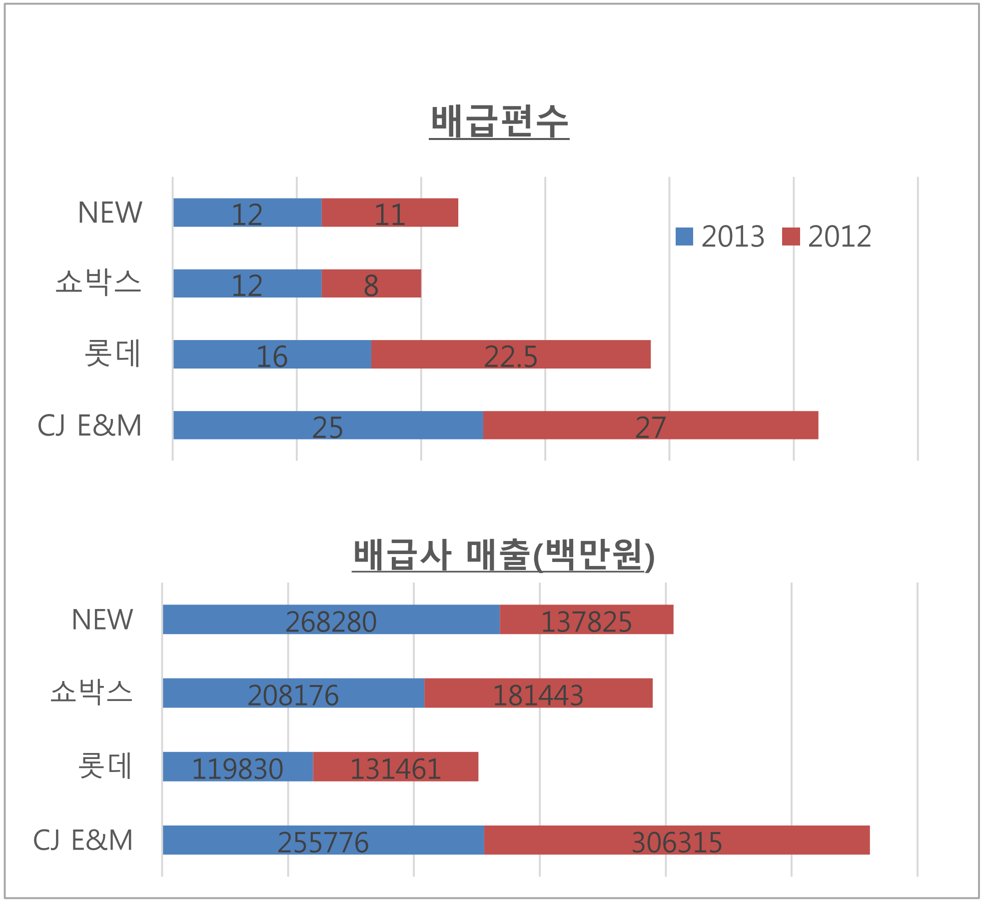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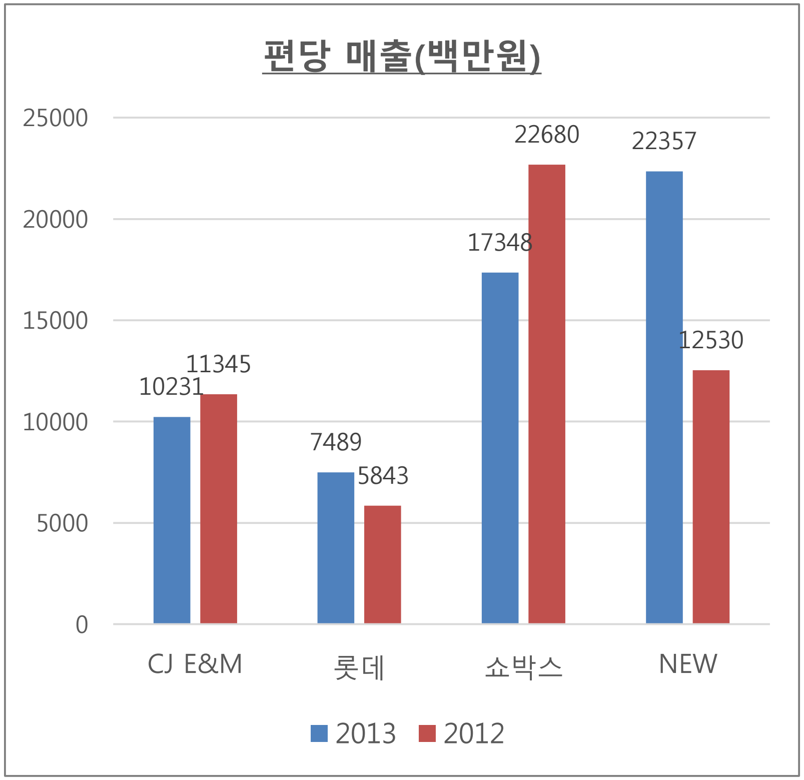
*2007년 오리온 메가박스 매각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자료 분석)

국내 수직계열 기업들 잘 하고 있나?

한국영화 성과 비교:
수직계열 배급사 제작 편수는 많지만 매출 및 편당매출은 더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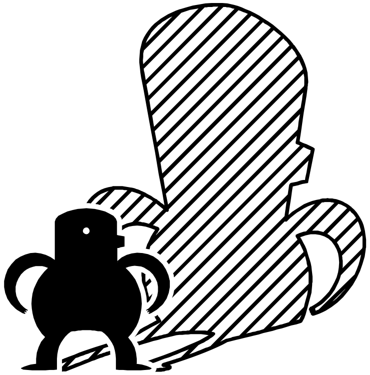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자료 분석)

IV. 결론: 수직계열화 무엇이 문제인가?

- 수직계열화 기업의 기여
  - 한국 영화시장 성장
  - 대규모 작품 투자, 글로벌 네트워크 조성
- 문제는 높은 "시장집중도"와 파생 문제들
  - 시장파워 이용한 불공정 행위 발생 가능성
  - 반경쟁성, 소비자후생에 부정적 영향
  - 수직적 제약(vertical restricts) 등 대책 요구
    - 슬라이딩 시스템, 최소상영시간 보장, 단체협약 등



- 수직계열사의 비효율성 문제
  - 수직계열 배급사들이 독립적 배급사보다 성과 저조
  -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기업환경 변화 속에서 수직계열화가 최선의 전략인가?

주요 참고문헌

- 류형진(2008) 영화산업 독과점,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영화 동향과 전망. 6
- 윤충한, 김홍대(2012) 영화배급, 상영의 수직계열화가 상영영화 선택 및 상영횟수에 미치는 영향. 문화경제연구. 15(2)
- 이근재 외(2009) 한국 영화산업에서 수직 결합이 영화상영에 미치는 영향: 상영배체, 상영기간 차별 및 다양성을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57(2)
- 좌승희, 이태규(2006). 한국영화산업 구조변화와 영화산업정책. 한국경제연구원
- 최영준, 김미현(2013) 한국영화산업에서 수직계열화 극장의 상영패턴 결정요인 분석. 생산성논집 27(2)

- Gil, R.(2009) Revenue sharing distortions and vertical integration in the movie industry. J. of Law and Economics & Organization, 25(4)
- Hwang(2013) Vertical integration and market foreclosure in the Korea movie industry.
- Kwak, Dong Kyun(2012), On the rise and fall of vertical integration between US movie studios and movie theaters. Ph.D., INDIANA UNIVERSITY.
- Sunada, M.(201) Vertical integration in the Japanese movie industry. J. of Industry, Competition and Trade, 10(2).